

—對 話—

「킬케고오르」

崇大 哲學會 주최의 古典과의 대화를 위한 강좌에 한 시간 배꾸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벌써 20년 전에 도취해 본 일이 있는 「킬케고오르」생각이 나서 킬케고오르의 「不安의 개념」이나 소개할 생각으로 제목부터 정해 버렸다. 내 전공이 아닌 철학강좌이기 때문에 절정한 날 부터 不安한 마음으로 그를 소개한 책들을 들 나는데로 읽었다. 그러나 그의 不安의 개념을 充分히 소개한 것을 발견 못해서 마지막 고비에 와서 결국 그의 原著를 精讀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주최측이 뒤 늦게 좀 적극적인 면을 내세우는 제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不安과 信仰이라고 정해 버린 탓에 그 외에 「공포와 전율」, 「죽음에 이르는 법」등을 읽어 볼 수 밖에 없었다. 신학자면서 킬케고오르의 權威인 「힐쉬」(Hirsch)의 독어역본을 이용했다. 그의 原著 그리고 그를 소개한 책으로 권위인 코펜하겐대학의 교수였던 E. Geismar의 책 「힐쉬」의 킬케고오르 연구 등 몇권의 책을 읽는 동안 또다시 그에게 달려드는 느낌이였다.

「킬케고오르」는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오랫동안 끼쳤다. 구라파에 가셔도 신학에 쫓겨서 다른 것에 손댈 수 없다고 알면서도 그에 관한 책들은 눈에 띄이는 대로 사두었던 것이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갔을 때도 무엇보다도 그의 무덤이라

도 찾고 싶은 마음이였다. 그래서 아침 일찍 同行한 함석헌 선생을 홀로 있게 하고 차를 몰고 거리로 나왔다. 안내서에서 킬케고오르의 무덤이 시 공동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라스로 들어서 결국 무덤 앞에 섰었다. 의외로 그 무덤은 초라할 뿐 아니라 혼자도 아니고, 그 아버지, 형과 같이 누어 있었다. 사람은 거의 눈에 띄이지 않는 일은 아침이였다. 그 무덤에는 어떤 마음이 놓고간 꽃다발이 하나 있었으나 이미 시들고 있다. 나는 그 앞에 묵묵히 서서 그의 짧고 고뇌에 찬 생애를 연상하고 있다.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 눈에는 어떤 이가 뚱으로 싸서 뚱으로 꽃아 놓은 작고 두꺼운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테기네」의 무덤이 50m 저쪽에 있다는 것을 화살을 그려 표시했다. 「테기네」, 그는 K의 유일한 愛人이였다. 약혼까지 했다가 파혼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일생을 두고 사랑했던 여인이다. 나는 쉽게 그 무덤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무덤은 펙 웅장했는데 그 비석은 「테기네 솔레겔」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는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와 나란히 누어 있다. 그때 나는 그탄을 어버렸다. 살아서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죽은 후에도 아이르니칼하게 바로 곁에 다른 남자와 나란히 누어 있었다.

내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었는데, 無常 앞에 울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다

시 K.의 무덤 앞에 서서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먼 한국 땅에서 클로 알게 된 내 눈물이 그를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듯이. 하여간 그의 무덤은 그처럼 고독해 보였다. 고독자 K. 우수 불안 절망 속에 宿命的으로 빠져 들어 가는 데서 헤어 나오기 위해 양간힘을 다 해서 순수한 신앙을 가져볼려고 애쓰던 그다. 그랬기에 내 마음을 몹시 혼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그의 글을 읽으면서는 전과는 다른 평가가 생겼다. 다시 읽으며 우선 느낀 것은 그의 진지한 實存을 위한 싸움이 제평가 꽤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실존주의와 함께 한동안 유명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同時に 實存主義가 비판을 받으면서 그도 도배급에 처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은 부당하다. 오늘의 세계 조류가 또다시 헤절적인 사고의 영역으로 휘몰려 들어 가는 듯한 마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름은 무엇으로 불렸든지간에 텍그늘로지, 데스 콧, 정치, 경제의 조직화 속에 「전체」라는 괴물만 등장하고 個個의 人間은 소의 되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킬케고오르」는 여전히 할 말이 있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반면에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피어진 몸부림을 쳤으나 바라 보는 언덕까지는 못 올라가보고 말았다는 느낌이다. 그는 사랑, 사랑하면서 구체적인 사랑은 못 해왔고 信仰, 신앙 하면서 신앙의 생활화는 못한 것 같다. 그는 자기에게 너무 몰두하는 나머지 「너」에게로 자기를 내 배겨 보지 못했다. 그에게는 사랑도 믿음도

결국 자기애의 영역을 못 벗어났다. 그러므로써 그런 것은 그가 싫어하는 관념이 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그는 알았다. 그러나 너무 강한 Ego에 높이, 그리고 두껍게 둘러 싸여 있은채 끝끝내 현실세계에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결론적인 평가는 보류했다. 좀 더 생각한 후 그 강좌의 내용을 언젠가 本誌에 실을 생각이다.

「宇宙時代와 信仰」

YWCA 주최로 각 대학의 교원으로 된 교수들의 모임에서 위와 같은 제목의 심포지움이 있었다. 나는 어떤 의도에서 이런 모임을 주최했는지 잘 몰랐으나 만일 아폴로가 달에 着陸했기에 갑자기 信仰의 위기라도 느꼈다면 信仰을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나는 信仰의 本質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얘기하고 질문에 들어갔다. 질문 중에 만일 어떤 他星에서 어떤 生物 또는 인간이 발견되는 경우에 성서는 무효화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물음의 이면에는 성서의 창세설화와 창조주가 독생자를 지구에 보냈다는 사실이 문제되었는 것이다. 즉 성서의 地球中心的 表現이 문제되고 그것이 허물어지면 성서 전체가 휴지로 될 不安이 있은 것 같았다. 만일 그의 질문을 내가 바로 이해했다면 그이는 성서를 우주과학의 교과서로 믿는 것이 된다. 그러나 성서는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교과서는 아닌 것이다. 성서가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성서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인간세대를 의미한다. 성서는 회합적인 코스모스 개념은 없다. 이

렇게 말하면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렇다. 그러나 그 계시에서 들어난 것은 사람의 眞相이다. 즉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가 계시된 것이다. 그런데 성서가 이 사람을 나타 내는 도구(용어)는 그 시대의 세계관, 즉 그 시대의 인간의 말인 것이다. 따라서 성서가 오늘날 써어졌다면 오늘의 세계관, 오늘의 용어로 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까닭 잘못하면 바로 이 도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기 쉽다. 그런 잘못은 가령 성서에서 주려낼 수 있는 年代的인 계수가 6千年이라고 하면 우주의 연령은 6千年이라고 믿는 따위가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아직도 우주는 三層으로 뻗었다고 고집해야 할 것이다. 아니 성서는 사람이 어떻게 存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한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존재해야 한다는 뜻을 믿는 것이다.

그 뜻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 뜻을 표현한 「도구」와 혼돈하기 쉽다. 도그마, 교리같은 것을 절대화 할 때 그런 잘못에 빠진다. 이것이 科學과의 충돌을 가져왔다.

科學에 의해서 개척된 결과는 신앙과 충돌 되지 않는다. 그러나 科學에 의해서 人間의 상황이 달라진다. 사람이 신앙한다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의 결단이다. 그런 뜻에서 宇宙時代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宇宙시대 信仰의 위험을 느낀다면 그 信仰 自體가 애초부터 잘못 된 것이다.

信仰과 충돌되는 것이 있다. 아니 信仰의 입장에서 싸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科學主義다. 이 말은 개관화 된 것으로 人間에게 이렇게 존재 해야 한다고 명령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용납할수 없다. 科學은 자기 한계를 지켜야 한다. 그 이상을 넘어서면 악마화 될 수 있는 것이다.

60年代

시간이란 본래 있는게 아니라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도구라고 한 사람이 있다. 사실상 60년대라고 금 그어 놓아야 할 근거는 없다. 그것은 50년대의 연장이고 70년대로 넘어가는 고랑쇠에 불과하다. 그러나 60년대로 금 그어 놓고 생각한 버릇은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이제 내 삶에서 60년이라는 때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無常하기 까지 하다. 60년대는 한국으로서는 파란 많은 연대다. 政變이 두번이나 있었고, 피흘리는 데모가 연발했다. 그 동안 政治, 經濟 무대의 主役은 장그리 바뀌고, 삶의 분위기나 윤리 기준이 너무나 달라졌다.

세계적으로 보면 꼭 나와야 할 새로운 삶의 철학은 나오지 못하고 대신 달에까지 올라 갈 수 있는 기술만 발달했다. 그래서 손발이 길고 머리는 작고 심장이 약한 연대가 돼 버렸다. 손 발만 길어져서 질주하는 속도에 그 머리, 그 심장이 지

행할지 의문이다. 토인비가 윤리와 기술의 불균형이 현대의 비극이라고 했는데, 그 비극을 그대로 안은 채 70년대로 넘어 가는가 보다.

내가 歸國한 것은 65년 8월이었으니 이 연대의 반은 구라파에서, 그리고 나머지 반은 한국에서 산 셈이다.

바로 그해 부터 구라파는 새 것을 기다려다 지친 젊은 世代들이 반항의 봉화를 들고 일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뒤부수기 시작했다. 그 뒤부터 독일의 친구들은 지금의 독일은 그때의 독일은 전혀 아니요, 대학은 물론 더하고……라는 편지들을 보내 왔다. 歸國했을 때는 韓日國交正常化 反對 메모와 그것을 막는 최류탄 냄새가 시내를 누비고 있었다. 韓日國交正常化는 여러 分野에서 善惡間에 우리 현실의 分水嶺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物質主義의 水門을 열어 놓은 때라고 생각된다. 그후 부터 「토마스·만」의

一家에서 묘사된 가장 잔인한 「돈 버는 시대」인 세대로 突入했다. 經濟第一—돈 제일주의는 그대로 70년대로 밀려 넘어간다

60년의 한국의 신학제는 바닷가의 뜬 落葉이나 비질가? 파도가 휘몰아치면 제 중심을 가누지 못하고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하면서도 바다 깊숙이는 못드러가고 여전히 가에서 浮動하는——世俗化, 土着化, 宗教間的 대화, 非 宗教化, 신의 죽음의 신학, 희망의 신학, 오메가 포인트 신학, …… 受容태세는 안테나의, 녹음도 되어 있지 않는——교회에 대한 소리도 체질 개선, 체질 개선의 소리만 높았으나 교회 체질의 색인은 별로 없고 체질 개선의 소리만 체질화 된채 잠들어 버린 듯한 60년대.

60년대에 너무 틀뿔여서 체질이 약해졌다. 그러니 70년 초반은 안정제를 먹고 휴식이 필요하다.

※※※※※※※※※※ ※ 편 집 후 기 ※ ※※※※※※※※※※

◎ <벌써>와 <이제야>는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기분이라고도 합니다는 「현존」도 벌써와 이제야의 틀바구니에서 6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써이든 이제야이든 그것은 단지 기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6호라는 誌齡의 뒤에는 독자의 정성이 깃든 숨결과 글을 쓰는 분들의 독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이 함께 얹히어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분위기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격려의 편지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 지난 호에 「윤리판단에서의 상 황성과 상황윤리」를 기고하여 주신

나 학진 교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이번 호에는 「최일즈」의 논문을 비판한 「구약에 나타난 신화와 실제」를 실었습니다.

원고를 주신 박 노순 선생께 감사를 드립니다.

◎ 채 위 선생께서 번역하신 「테리언」교수의 글 <“현존”의 새 신학에 대하여>는 구약 이해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 해가 기우는 달,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멧세지에 힘입어 결산의 무거운 짐을 푸시고 새해를 맞으십시오.

現 存

6 호

1969年 11月 25日 인쇄

1999年 12月 1日 발행

편집 발행인	안	병	무
발 행	현	존	사
인 쇄	광	명	인 쇄 공 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64의 11

대체 서울 1526 번 전화 (28) 9141 (93) 1465

등록일자 1969年 4月 11日(등록번호 제라-1140 호)

값 100 원